

---

# 2015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 이천시의회

## 《연수개요》

- 연 수 국: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 연수 목적
  -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해외 선진사례 탐방을 통해 선진 의정활동 구현 방안 모색
  -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제 투자 현황, 러시아의 세계문화유산 및 관광 자원의 홍보와 보존 방식 등을 벤치마킹
- 연수 기간: 2015. 8. 21. ~ 8. 31. (11일간)
- 연수 인원: 10명(의원 6명, 직원 4명)

## 〈 목 차 〉

I. 연수 개요	-----	1
II. 연수지역 개요	-----	3
III. 기관방문 연수내용	-----	8
IV. 주요지역 시찰 및 발굴사례	-----	13
V. 연수후기 및 소감	-----	21

# I. 연 수 개 요

## 1. 목 적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해외 선진사례 탐방을 통해 선진 의정활동 구현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제 투자 현황, 러시아의 세계문화유산 및 관광 자원의 홍보와 보존 방식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함.

## 2. 기 간: 2015. 8. 21.(금) ~ 8. 31.(월) [11일간]

## 3. 연수 국가: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 4. 참가 인원: 10명

연 번	소 속	직 위 및 직 급	성 명	비 고
1	이천시의회	의 장	정 종 철	
2		부 의 장	김 문 자	
3		의회운영위원장	서 광 자	
4		자치행정위원장	전 춘 봉	
5		산업건설위원장	홍 헌 표	
6		의 원	김 하 식	
7	의회사무과	의 회 사 무 과 장	이 교 관	
8		의 정 팀 장	박 영 근	
9		주 무 관	조 동 준	
10		주 무 관	석 보 현	

## 5. 주요연수일정

일시	장소	방문기관(대상)	연수내용	비고
8월 22일 (토)	블라디 미르	·우스펜스키 사원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블라디미르의 관광 자원 홍 보 및 보존실태 탐방	
8월 26일 (수)	모스크바	·KOTRA 러시아 모스크바 무역관	해외중소기업 육성 시책 자 료 수집	
8월 26일 (수)	모스크바	·러시아 관광청	러시아 여행프로그램 개발 및 업체 지원 정책 등 비교 자료 수집 및 관광자원 운 용 실태 파악	
8월 26일 (수)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	1km가 넘게 조성된 보행자 전용도로와 문화예술거리 조성현황 탐방	
8월 27일 (목)	상트페테 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투자위원회	투자 및 도시 개발 정책 수 립 및 지원 현황 파악	
8월 27일 (목)	상트페테 르부르크	·레닌드라드주 경제 발전연구소	레닌그라드주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 파악	
8월 28일 (금)	페테르자 보스크	·키지섬 박물관	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 화유산으로 등재된 키지섬 을 방문, 문화유산 보존 실 태 및 홍보 전략 등 파악	
		·까렐리아 공화국 문화부	관광 정책 자료 수집	

## II. 연수지역 개요

### 1. 러시아

위치	동부 유럽
경위도	동경 100° 00", 북위 60° 00"
면적	17,098,242km <sup>2</sup>
해안선	37,653km
시간대	(UTC+2 to +12) Summer: (UTC+3 to +13)
수도	모스크바
종족구성	러시아인 79.8%, 타타르인 3.8%, 우크라이나인 2%, 바슈키르인 1.2%, 추바슈인 1.1%, 체첸인 0.9%, 아르메니아인 0.8%, 기타 10.4%
공용어	러시아어
종교	러시아정교 (15-20%), 이슬람교 (10-15%), 그 외 그리스도교 (2%)
독립일	1991년 8월 24일
국가원수/ 국무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Anatolyevich Medvedev) 대통령 (2008.5.7 취임, 임기 4년, 2012년부터 6년으로 연장)
국제전화	+7
정체	공화제
통화	루블(ruble)
홈페이지	<a href="http://russia.rin.ru">http://russia.rin.ru</a>
인구	14,247만명(2014년 기준)
평균수명	65.94세(2008년 기준)
출산율	1.4명(2008년 기준)
1인당GDP	8,184 \$ (2015년 기준)
실업률	6.2%(2007년 기준)
수출규모	3,650억 \$ (2007년 기준)
수입규모	2,604억 \$ (2007년 기준)
인구밀도	8명/km <sup>2</sup> (2008년 기준)

[러시아 주요 도시 및 연수단 전체 일정도]





- 극동에서 동부 유럽에 걸쳐 있는 나라이며 12세기 모스크바공국에 기원을 두며 1917년 러시아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대제국을 이루다 1924년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거듭났다. 1990년 고르바초프의 냉전종식 정책으로 각 공화국들에 민족주의 분규가 일어나면서 1991년 12월 31일 소련이 해체, 독립국가가가 되었다. 정식명칭은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이며 북쪽으로는 북극해, 동쪽으로는 태평양에 면한다. 남쪽으로 북한·중국·몽골·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그루지아, 서쪽으로는 우크라이나·벨라루스·라트비아·폴란드·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핀란드·노르웨이 등에 닿아 있다. 다양한 지질구조의 광활한 영토에 거의 모든 종류의 자원을 갖고 있지만 넓은 국토와 다양한 인종은 국가의 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소련의 붕괴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99년부터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행정구역은 46개 주(oblasy), 21개 공화국(republics), 4개 자치 오크룽(autonomous okrugs), 9개 크라이(krais), 2개 연방시(gorods;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1개 자치주

(autonomous oblast' ; 예브레이)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인구는 약 1억 5천만 명으로 100여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인구의 81%가 러시아인으로 가장 많으며 4%의 타타르인, 3%의 우크라이나인과 그 외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용어는 러시아어이나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도 통용된다. 러시아인의 대다수는 그리스정교를 믿고 있으며, 이외에도 소수지만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 등을 믿는다. 그러나 이교적(민속신앙)인 신앙이 기독교와 결합된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의 신앙을 이중 신앙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 2. 러시아 블라디미르

- 러시아 서부의 주로 주도는 블라디미르이다. 넓이 2만 8,999km<sup>2</sup> 인구 165만 4,000명, 곡물 · 아마 재배지로 기계 · 화학 · 경공업이 성하였다. 12세기에 요새로 건설되었으며 1158~60년 건설한 우스펜스키 대성당, 1194~97년 지은 드미트리프에스키 성당이 위치하고 있다.

## 3. 러시아 모스크바

- 러시아 연방의 수도인 모스크바는 면적 1,081.0km<sup>2</sup>에 인구 1,041만 5,400명(2005년도 기준)이 거주하며 러시아의 행정 · 경제 · 문화 중심지이며 공항 외에 9개의 철도역이 집중한 교통의 요충지이다. 정밀 기계 · 전기 기구 · 가정 기구 · 섬유 · 염료 · 화학 공업 등이 발달하였다.

13세기에 모스크바 공국의 수도가 됐으며 이후 15세기까지 여러 차례 타타르인의 습격으로 약탈 · 방화를 당하였다. 1712년 표트르 대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천도(遷都). 1812년 나폴레옹이 점령하면서 도시 전체가 소실되기도 하였다. 러시아 혁명 후인 1918년 레닌에 의해 다시 수도가 되면서 크게 확장됐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공격 목표가 돼 많이 파괴됐다. 전쟁 후 재건 · 확장되었다. 영화 · 음악 · 무용 등 예술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특히 '크렘린 궁'과 '붉은 광장'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소이다. 1755년 개교한 모스크바 대학이 있으며, 미술가 칸딘스키

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 4.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러시아 연방 제2의 도시이며 면적 1,439km<sup>2</sup>. 인구 5,000,000명이다.

러시아 연방의 북서부 끝에 있으며, 모스크바에서 북쪽으로 약 640km, 그리고 북극권에서 남쪽으로 불과 7° 정도 떨어져 있다. 지난 2세기 동안 제정 러시아의 수도로서 러시아 역사의 중심무대를 이루었으며, 지금도 공업, 문화 도시 및 항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703년 포트르 대제가 네바 강의 하구에 세운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요새에서 비롯된 도시로 처음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했다가 1914년 페트로그라드로 개칭되었고, 1924년 레닌이 죽자 그의 이름을 기념하여 레닌그라드로 명명되었다. 그후 1991년 11월 7일 사회주의 개혁의 와중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본래 이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되찾았다. 이 도시는 1917년 2월혁명과 10월혁명의 현장으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중에는 독일군의 극심한 포위공격을 끝까지 버텨낸 곳으로 유명하며, 건축적인 면에서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의 하나로 명성이 높다.

#### 5. 러시아 카렐리아 공화국

○ 카렐리아 지역의 동부이자 러시아 서북부에 위치한 공화국으로 면적은 172,400km<sup>2</sup>로 한반도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지만 인구는 64만명이다.

주도는 페트로자보츠크로 주도 인구가 26만 명으로 공화국 인구의 40%가 주도에 거주한다. 이름은 카렐리아 공화국이지만 정작 인구의 대부분은 러시아인이다. 2010년 기준으로 카렐리아 공화국 인구의 82.2%는 러시아인이었고, 카렐리아인은 인구의 7.4%에 불과했다. 이런 연유로 카렐리아 공화국의 공용어는 카렐리아어가 아니라 러시아어이며 카렐리아어와 핀란드어, 뱍스어는 '국가 언어'의 지위에 있다. 1940년부터 1956년까지는 소련을 구성하는 공화국 중 하나였다. 원래 카렐리아는 소련을 이루는 공화국 중 하

나였던 러시아의 자치 공화국이었으나, 1940년 소련은 겨울전쟁 때 세운 스스로 유일한 핀란드의 합법 정부라고 주장한 핀란드 민주 공화국과 카렐리아를 합쳐 "카렐리아-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세웠다. 그러나 사실 카렐리아-핀 공화국은 애초에 정치적인 의도로 세워진 곳일 뿐더러 겨울전쟁 이후로 이 지역에 거주하던 카렐리아인들과 핀인들은 거의 핀란드로 피난했기 때문에 이 지역 인구의 절대 다수는 러시아인이 차지하게 되었고, 2차 대전 이후 핀란드와 소련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1956년 카렐리아는 다시 러시아의 자치 공화국으로 격하되었다.

### Ⅲ. 기관방문 연수내용

#### 1. KOTRA 러시아 모스크바 무역관

##### □ 기관 방문 개요

- 일시: 2015. 8. 26.(수)
- 장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회의실  
Rm. 908, Office Bldg., WTC, 12, Krasnopresnenskaya nab.,  
Moscow, 123610, Russia
- 참석: 12명(KOTRA 모스크바 무역관 2, 연수단 10)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2명) 소병택 본부장, 김하민 차장



『KOTRA 러시아 모스크바 무역관 방문』

##### □ 연수 주요내용

- KOTRA 러시아 모스크바 무역관 역할 소개, 러시아 경제 일반현황 브리핑, 러시아 기업 현황, 관광 정책 등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
- 러시아 진출 국내기업의 어려움과 러시아 기업문화를 청취하고, 러시아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국내기업이자 이천소재 기업인 “팔도 도시락”에 대한 사례와 노동법과 건축 인·허가 등 기업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최근 루블화 가치하락으로 러시아 관광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오랜 사회주의 국가 체제의 습성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도 볼 수 있었음.

## 2. 러시아 관광청

### □ 기관 방문 개요

- 일시: 2015. 8. 26.(수)
- 장소: 47 ul. Myasnitskaya, 101000, Moscow, Russia
- 참석: 13명(관광청 직원2, 연수단 10, 통역 1)

\* 러시아관광청(2명) 국제교류부장 발레리, 국제교류 실무자 알렉산더/  
통역 공선영



『러시아 관광청 기관방문』

### □ 연수 주요내용

- 러시아 관광청은 비자업무와 러시아 여행 프로그램 개발 관광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정책 개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임.
- 연수단은 러시아의 주요 관광정책을 살펴보고, **한국~러시아간 관광교류 현황을 들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성공 사례와 장·단기 계획 수립여부를 청취하였음.**
- 특히 사항으로 러시아의 경우 지하철을 예술적으로 건립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우리시의 **성남-여주간 역사 건립 시 벤치마킹하여 활용한다면 관광자원 구축에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됨.**

### 3. 상트페테르부르크 투자위원회

#### □ 기관 방문 개요

- 일시: 2015. 8. 27.(목)
- 장소: St. Petersburg , 191060, Smolny, entrance 6
- 참석: 14명(투자청 직원 3, 연수단 10, 통역 1)

\* 러시아 투자청(3명) 총괄담당자 세르게이 레오레드비치, 투자분석실 무자 안드레이, 투자분석실무자 유리예비치 벨로프/ 통역 이규호



『상트페테르부르크 투자위원회 기관방문』

#### □ 연수 주요내용

-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우리나라와 같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이며, 본 투자위원회는 지역에 대한 국가의 집행기관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투자정책을 구현하고, 투자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개발과 도시의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관임.
- 연수단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방법과 투자에 대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우리나라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성공사례를 통해, 기업 유치와 투자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음.

## 4. 레닌드라드주 경제발전연구소

### □ 기관 방문 개요

- 일시: 2015. 8. 27.(목)
- 장소: 레닌그라드 경제발전연구소내 회의실
- 참석: 15명(투자청 직원 4, 연수단 10, 통역 1)
  - \* 경제발전연구소(4명) 대표 드미뜨리, 투자총괄진행자 미하일 세르기 예프, 문화투자분야 담당 전문가 예브게니, 경제투자분야 담당 전문가 게오르지/ 통역 이규호



『레닌드라드주 경제발전 연구소 기관방문』

### □ 연수 주요내용

- 레닌그라드주 경제발전연구소의 주요 역할과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경제 연구소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청취하였으며, 레닌그라드 주의 문화유산과 각종 축제의 진행방안, 축제 예산과 관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들었음.
- 레닌그라드주 경제발전연구소는 이천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천시 주요산업(반도체, 도자, 쌀 등)에 대한 질의하였으며, 향후 발전적인 교류 협력을 희망하였음.

## 5. 카렐리아 공화국 (문화부)

### □ 기관 방문 개요

- 일시: 2015. 8. 28.(금)
- 장소: 185910 , г.Петрозаводск ул.куй бшева 5
- 참석: 17명(문화부 직원 6, 연수단 10, 통역 1)

\* 문화부 직원(6명) 다니엘, 나탈리아(대외관계분야담당), 알렉시아, 드미뜨리(경제협력 분야 담당), 예까제리나(관광업무 분야 담당), 드미뜨리(문화부 총괄업무)/ 통역 이규호



『카렐리아 공화국 문화부 기관방문』

### □ 연수 주요내용

- 카렐리아 공화국의 문화정책과 관광객 유치현황을 살펴보고, 키지섬 등 역사적 유물관리 방안과 관광지 개발계획을 청취하였음.
- 카렐리아 공화국은 러시아 연방과 연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관광객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기간 2월중 눈꽃 축제와 얼음 축제가 유명하고, 자연환경은 “백야”를 활용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었음.
- 연수단은 우리나라처럼 우수축제 선정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문의하였으며, 이천시의 대표 축제를 홍보하고, 교류협력을 제안.

## IV. 주요지역 시찰 및 발굴 사례

### 1. 붉은 광장 (Krasnaya Ploshchad)

- 크렘린과 더불어 러시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붉은 광장은 모스크바를 처음 찾은 여행객들이 제일 먼저 가게 되는 곳이다. 붉은 광장은 부활의 문을 통해 발을 들여놓으면 멀리 보이는 성 바실리 성당과 왼쪽 광장 한 측면을 가득 채운 국영백화점(ГУМ) 백화점의 웅장한 건물, 그리고 오른쪽 크렘린 궁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안의 붉은 광장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붉은 광장이라는 이름에서 공산주의의 상징인 붉은 색이 광장을 온통 물들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러시아어인 크라스나야는 과거에 '붉은'이라는 뜻과 함께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에는 '붉은'이라는 형용사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광장'이 아닌 '붉은 광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다. 이름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사계절 언제 찾아도 아름다운 곳이며, 특히 야경이 일품으로 꼽힌다.

### □ 연수 시사점 및 발굴 사례

- 연수단은 사진 자료에서 보듯 붉은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과일과 채소를 이용한 조형물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음.
- 우리시의 경우 쌀, 도자기, 복숭아, 산수유 등 각종 축제가 있고, 축제의 주요 장소로는 설봉공원이 이용되고 있음. 아래 사진에서 참고한 바와 같이 이곳에 우리시의 각종 특산물을 이용한 축제 조형물을 조성한다면, 지역 특산물 홍보 효과는 물론, 축제 미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아울러, 축제장내 상점 또한(아래 사진참조) 각종 꽃 장식을 통해 상당히 화려하게 장식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시 또한 축제장내의 각종 상점을 이처럼 꾸민다면 한층 볼거리가 풍성한 축제로 관광객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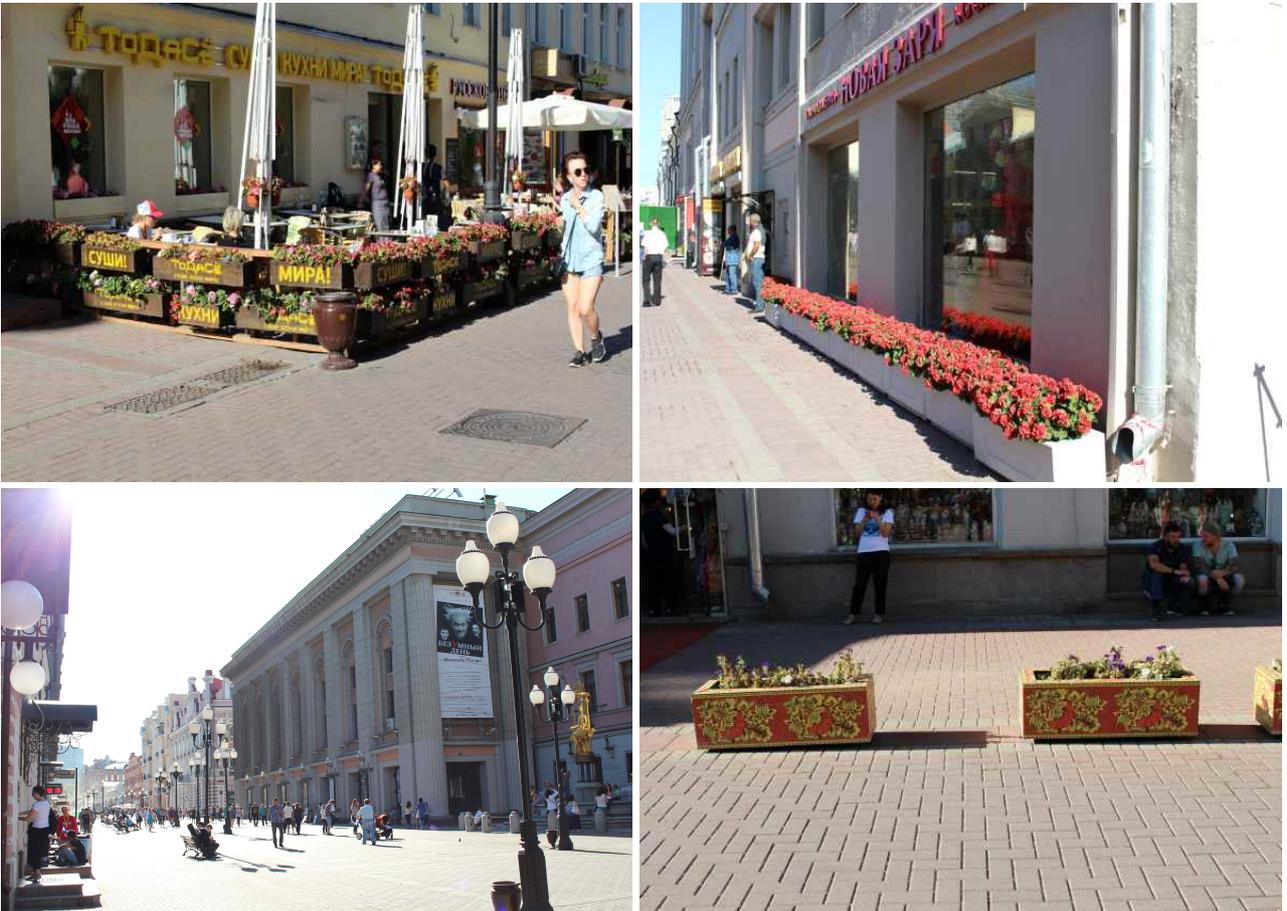
『붉은 광장에 본 과일·채소를 이용한 조형물과 화려하게 장식된 거리의 상점』

## 2. 아르바트 거리 (Arbat Street)

- 젊음의 거리 아르바트 거리는 아르바트 광장부터 스탈린 양식의 대표적 건물인 외무성까지 1km가 넘는 보행자 전용도로이자 문화예술의 거리로 늦은 밤까지 젊은이들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다. 이 거리를 걷다보면 푸시킨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동상을 비롯해 아직도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각광 받고 있는 빅토르 최를 추모하는 벽화를 볼 수 있다. 빅토르 최는 한국인 3세로 아버지 쪽이 고려인이다. 락밴드 '키노'를 이끌었고 글도 쓰고 영화도 만들었다. 영화를 사랑했던 최는 영화를 직접 감독하고 출연까지 했다. 그의 노래 모두는 4장의 앨범으로 나왔다. 그 앨범 모두가 러시아 젊은이들의 가슴에 강하게 자리 잡았고, 1991년 33세의 젊은 나이로 자동차사고로 요절하면서 그의 노래와 이야기는 신화가 되어 러시아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 □ 연수 시사점 및 발굴 사례

- 연수단은 사진자료에서 보듯 거리에 설치된 상가 앞 꽃 화단과 거리 중앙에 놓인 화단 그리고 가로등에 살펴보았음.
- 우리시 또한 중앙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접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외 각종 동상과 조형물이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상당히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었음.
- 아래 사진에서 보듯 상가 앞 화단은 충분히 검토한 후 설치하되, 사후관리 방안 등 미비점은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



『아르바트 거리의 상점 앞 꽃 화단과 상가, 가로등』

#### 4. 굼 백화점 (GUM)

- 모스크바의 관광 1번지 붉은 광장의 한쪽 면으로 길게 늘어선 3층 건물의 국영백화점이다. 지금은 유명해외브랜드 매장과 수입 식료품점들로 러시아의 높은 물가에 한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1893년에 지어진이 백화점은 1990년대 초반 하더라도 해외 브랜드는커녕 매장에 물건이 없어 비어 있는 곳도 많았을 뿐더러 그다지 볼품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고 하니 경제성장으로 달라진 러시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중앙홀에는 작은 분수 및 카페들도 많아 물건을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이쇼핑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항상 붐비는 곳이다.

#### □ 연수 시사점 및 발굴 사례

- 연수단은 사진자료에서 보듯 백화점 안에 설치한 수박을 활용한 조형물에 관심을 가졌음. 이곳에서는 수박조형물을 만들어 쇼핑객들의 눈길을 끈 후 수박 판매와 더불어 수박을 이용한 다양한 음료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음.
- 우리시도 복숭아 등 특산물을 이용한 축제장내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를 현장에서 판매함은 물론, 음료나 아이스크림 등으로 가공 판매한다면 홍보는 물론 매출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특히 판매 과일을 이용한 조형물 설치가 시행이 복잡하지 않음은 물론 무엇보다 적은 예산으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어, 향후 우리시 축제에 접목하여 실효성을 검증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할 것임.



『화려한 굼 박물관과 수박을 활용한 조형물』

## 5. 모스크바 지하철 (바라보이 고르이 역)

- 모스크바 지하철(러시아어:Московский метрополитен)은 모스크바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는 러시아모스크바의 지하철이다. 1935년 5월 15일에 개통되었으며, 소비에트 연방의 첫 번째 지하철이다. 모스크바 지하철의 길이는 총 301.2km에 달하며, 12개 노선에 182개 역을 가지고 있다. 지하철은 오전 5시 30분에 개장,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영업한다. 열차 간 간격은 보통 약 2분 간격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90초마다 한 대꼴로 오기도 한다. 일일 이용자는 평균 655만에 달하며 모스크바의 대중교통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자랑한다. 주중에는 700만을 초과할 때도 있으며, 주말에는 그보다 낮아진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전 세계에서 도쿄 지하철 다음으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이다.

### □ 연수 시사점 및 발굴 사례

- 연수단은 사진자료에서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모스크바 지하철을 직접 타보기로 하고, 참새언덕으로 이동하는 중 바라보이 고르이 역에서 하차하였음.
- 러시아 지하철역은 마치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설치되어 있고,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재 우리시도 3개 역사를 건립 중에 있고, 이를 접목, 관광도시 이천을 상징하는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임.



『우주박물관 같은 모스크바 지하철 역』

## 6. 키지섬 (Kizhi Island)

- 키지 섬은 원래 이교도들이 종교 의식을 치르던 곳으로, 12세기 러시아 식민주의자들이 정착하여 멋진 목조건물을 지어 기독교 교구를 세웠다. 프레오브란젠스카야(‘예수의 변모’라는 뜻) 교회(1714년)는 높이 37m의 3층 건물로 22개의 둥근 지붕이 있으며, 종종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상트바실리 대성당과 비견된다. 카렐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상트 라자로 교회(1390)는 푸도주 지방의 무롬 수도원에서 야외 박물관으로 옮겨져 1961년에 복원된 것이다. 오늘날 키지 섬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는 ‘역사와 건축의 발자취’ 박물관(1960년 개관)으로 옛날의 목조 헛간, 가옥, 풍차, 교회들을 수집하여 야외박물관의 일부로 복원해놓고 있다.

### □ 연수 시사점 및 발굴 사례

- 연수단은 199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키지섬을 방문하여, 자연보존 상태와 운영 상태를 둘러 보았음.
- 키지섬은 무분별한 관광으로 인한 자연훼손을 예방하고자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은 물론, 각종 문화재 및 건축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그들의 노력과 자세에 깊은 감명을 받았음. 아울러 아래 사진에서 보듯 민속의상을 입은 전통 노래 공연팀이 관광객들과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 또한 우리시 각종 축제 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임.



『키지섬에서 민속의상을 입고 있는 전통 노래 공연팀과 변모 대성당』

## 7. 도시 조형물 (각종 동상 등)

- 러시아 연수중 시내 곳곳에 다양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특히 칼 마르크스, 레닌 등 사회주의자와 푸쉬킨, 유리 가가린 등 다양한 인물은 물론, 청동기마상, 황제의 종 등 도시 도시곳곳에서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 □ 연수 시사점 및 발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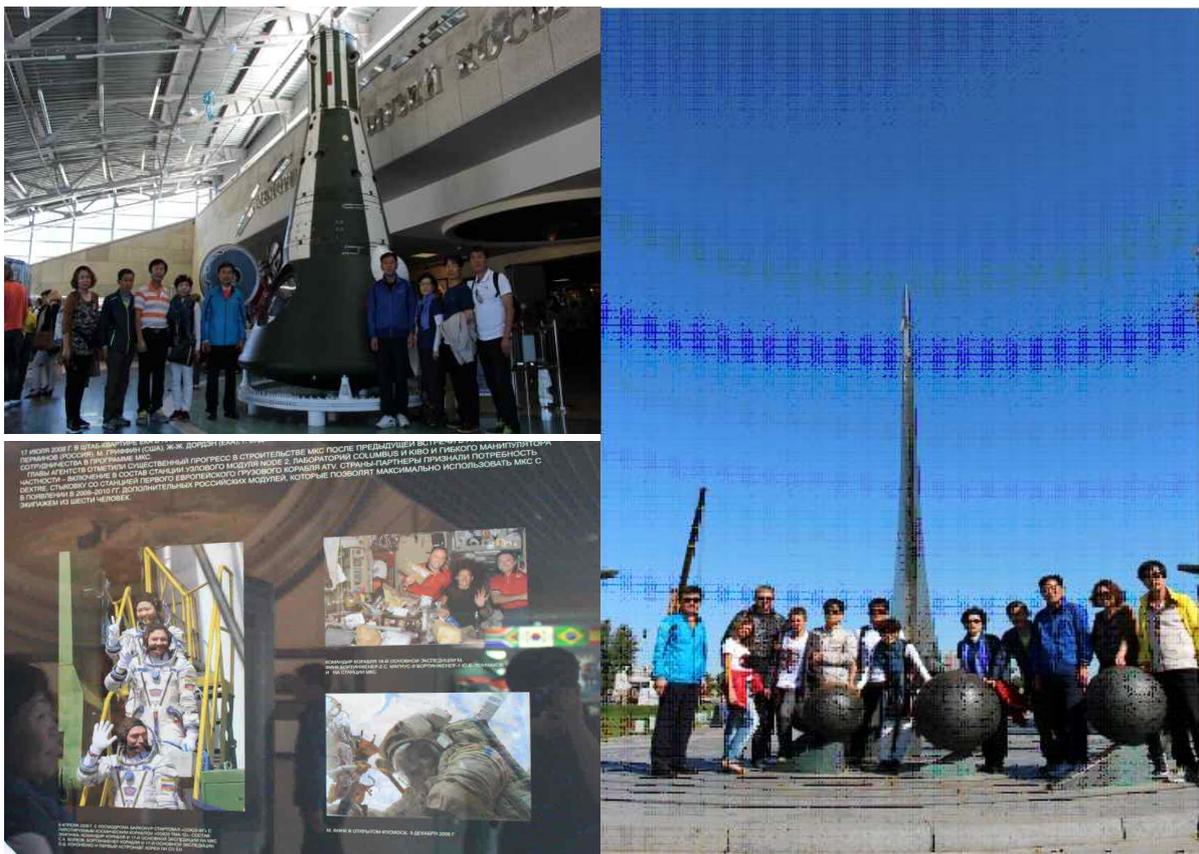
- 연수단은 모스크바 시내에 위치한 말 동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동상들을 보았고, 그 규모와 예술성에 큰 감명을 받았음. 특히 아래 말 동상은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말 특구 조성과 관련하여, 벤치마킹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우리시가 현재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통해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도시조형물 설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임.



『러시아 전역에 설치된 각종 동상들』

## 8. 베데엔하 우주박물관

- 러시아 우주과학기술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순간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1961년 4월 12일 우주선 보스토그호를 타고 우주비행 후 무사히 지구로 귀환한 이 역사적 성과는 냉전의 시대 라이벌이었던 미국을 당황하게 할 만한 거대한 사건이었으며, 유리가가린은 국가적 영웅대접을 받았다. 당시 소련은 이미 1957년에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하며 우주과학 기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박물관 내에는 우주정거장을 비롯해 우주인이 지구로 귀환할 때 타고 오는 캡슐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그동안 우주 과학 분야의 다양한 업적을 기록한 자료들과 함께 실제 우주선은 물론 내부에 들어가 볼수 있는 체험관도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의 사진도 걸려있다.



『베데엔하 우주박물관』

## □ 연수 시사점 및 발굴사례

- 연수단은 러시아 우주과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베데엔하 우주박물관을 참관하고, 한국인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의 모습과 이러한 박물관이 관광시설이자 교육시설로 활용되는 모습이 흥미로웠음.

현재 우리나라도 전남 고흥에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을 개설하고 우주과학기술을 전시함과 동시에 교육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며, 우주과학 분야는 미래 중요연구 분야로 산업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정부차원의 보다 많은 지원과 꾸준한 정책의 추진이 있어야 할 것임.

## V. 연수 후기 및 소감

- 러시아는 세계 최강대국중의 하나로 풍부한 자원과 세계 1위의 국토면적을 자랑하는 나라이며, 우리나라와는 냉전시대 대립한 공산국가라는 인식이 강한 나라이다.
- 러시아는 1985년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폭발적인 물가상승과 국가 디폴트를 겪으며 제한적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은 옛 사회주의국가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았다.
- 하지만 우리시가 전통문화유산은 많지 않은 반면 러시아는 옛 재정러시아 시절의 화려한 궁전과 성당뿐만 아니라 각종 조형물을 포함한 문화재가 풍부하여, 천만 관광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겐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 실질적으로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시는 하드웨어 보다는 차별화된 소프트웨어로 관광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해야만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며, 다행히도 우리시가 수도권 근교에 위치하여 대도

시를 배후로 접근성이 매우 높은 것은 우리의 강점이자 하나의 기회요인일 것이다.

- 러시아와 비교하여 무형의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우리시의 경우, 이미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도자예술과 공예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고, 향후 이천 쌀문화 축제 등 4대 축제와 함께 발전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운 지식은 우리 의원 개개인의 자기계발과 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연수 시사점 및 발굴 사례와 기관방문을 통해 교류했던 내용들에 대하여 우리가 실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연수보고를 끝맺고자 한다.